

## 01. 초등 영어 쓰기 교수·학습 방법

유치원 이전부터 영어를 익히고 온 학생들과 이제 3학년에서 시작하는 아이들의 출발점이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 이런 형편을 고려하면 학습자 중심 교육과 학습자 주도형 교육 환경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 볼 때 다양한 학생 중심의 활동 수업을 통하여 학생들끼리의 상호작용이 수업의 답인 것 같다.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서로 묻고 답하는 활동을 통해 수준 차에 따른 학습뿐 아니라 서로 돕고 협력하고 배려하는 활동 과정 속에서 인성 교육을 지향하고 있다. 특히 수준차가 크게 나는 초등 영어 쓰기 영역에서는 교사와 학생 간 상호작용보다 학생과 학생간의 상호작용이 활발히 일어날 수 있는 짝 활동과 모둠활동을 통한 교수·학습 방법이 더욱 유용하지 않나 생각된다. 교사가 아무리 정열적으로 가르친다고 해도 외국어 학습에서 성공을 거두기 어려운 것은 언어를 배우고 자기 것으로 만드는 주체는 바로 학습자 자신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습의 주체가 학습자 자신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외국어 교육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3,4학년군의 핵심 성취 기준은 쓰기 초보 단계인 알파벳 쓰기, 대문자와 소문자 쓰기, 간단한 어휘의 의미를 이해하며 쓰기, 문장 부호를 바르게 사용하기 그림이나 인물, 사건, 사물 등에 대해 간단히 묘사하거나 설명하기, 학습한 내용에 근거하여 자기의 생각이나 느낌, 경험 등을 간단히 쓰기, 학습한 내용에 근거하여 이야기 요약하기 등이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한 가지 정리하고 넘어갈 것은 3,4 학년 기준에서 벗어나 보이는 글쓰기가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이 학생이 선행학습으로든 외국에서 살다 와서 잘 알게 되었든 이미 알고 있어서 여기서 익히지 않아도 쓸 수 있는 단어나 문장을 허용하였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학년의 성취기준을 넘어선 수준을 가르치거나 중점을 두지는 않았고, 가이드 라인으로 제시된 기본 과정을 준수하였고, 다만 스스로 이미 익힌 단어나 문장이 있으면 막지는 않았고 또 옆 짝과의 활동을 통해 모른 단어나 문장을 서로 물어서 알게 되는 것은 허용했다는 뜻이다.

## 1. 쓰기 지도의 요령

## 가. 통제적 쓰기 연습(controlled writing)

## 1) 베껴 쓰기

말로 배운 단어나 문장 들을 그대로 베껴 쓰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이미 배운 단어나 문장 등의 학습을 강화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보고 베껴쓰기도 잘 못하는 학생의 경우는 투사지를 위에 놓고 그대로 베끼도록 하거나 점선을 따라 쓰게 해도 된다.

## 2) 낱말 쓰기

학생들에게 물건, 사람 등의 구상물을 그림으로 제시하여 보여 주고, 그것을 영어로 쓰게 한다. 그림으로 제시된 구상물을 나타내는 단어들의 음성 언어는 이미 충분히 연습된 것이어야 한다.

- 그림을 보고 그림을 나타내는 낱말을 영어로 쓰기
- 낱말을 위나 아래의 반을 가린 다음 반만 보이는 낱말을 완성하기
- 철자가 틀린 낱말을 바로 고쳐 쓰기(예 housa → house)

- 빈칸에 빠진 철자 써넣어 완성하기(예 de\_k, penc\_l, r\_ler, \_ook)
- 앞 낱말의 끝 글자 이어 다른 낱말 쓰기(예 yellow→ watch → hot→ tiger...)
- 첫 낱말을 읽고 연상되거나 관계있는 낱말 이어서 써 나가기  
(예 book → notebook→ pencil → pen....)

#### 나. 유도적 쓰기 연습 ( guided writing)

##### 1) 문장 쓰기

학생들에게 익숙한 주제에 관한 간단한 그림을 그리게 하고 그 그림을 설명하는 글을 한 문장으로 쓰게 한다. 이를테면 자신의 아버지의 모습을 그리고 “This is my father” 혹은 수영하는 누나의 모습을 그리고 “My sister likes swimming” 과 같은 문장 수준의 글을 쓰게 한다.

##### 2) 완성하기

문장의 일부분만을 미리 제시하고 나머지 부분을 완성하게 한다. 이때 문장의 내용을 잘 나타내는 그림 등의 자료를 함께 제시하면 학생들의 글쓰기의 방향을 올바르게 유도할 수 있다. 제시하면 문장의 일부는 전체 문장의 전반, 중반, 후반 등의 어느 부분이라도 상관없다. 학습의 목표와 내용에 따라 교사가 판단하여 제시하면 된다.

##### 3) 기억해 쓰기

조금 큰 종이에 몇 개의 단어나 간단한 문장을 쓰고 읽을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준 다음, 그 종이를 치우고 종이에 쓰여 있는 것을 외워서 쓰게 하는 방법도 있다. 학생들의 시각기억력을 증진하는 훈련이다. 칠판에 써서 제시하고 일정 시간 보여준 후 지워 버릴 수도 있으나, 지워 버리고 나면 나중에 확인할 때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 4) 받아쓰기

간단하고 짧으며 한숨에 말 할 수 있는 정도의 문장을 정상 속도로 읽거나 말해 주고 그것을 정확하게 받아쓰게 한다. 같은 속도, 같은 억양으로 두 번 정도 읽어 주는 것도 좋다.

##### 5) 카드나 초대장 만들기

어떤 기념일이나 행사 등을 가정하고 그에 관련된 카드나 초대장을 직접 쓰게 한다. 물론 이것을 쓰는 요령은 미리 가르쳐야 한다. 같은 학급 내의 어느 친구에게 생일 카드 초대장 등을 써서 학급 내 우편배달부를 통해 전달하게 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 6) 자유 쓰기

사물이나 사건 등을 묘사하거나 편지쓰기 등이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자유 쓰기의 형태이다. 자유쓰기에는 매우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다. 미리 글을 쓸 주제나 제목을 교사가 정해 줄 수도 있고, 학생들의 의견을 듣고 학생들과 함께 정할 수도 있다. 가급적 학생들의 의견을 듣고 글쓰기의 주제를 정하는 것을 권장한다. 통제적 쓰기 연습이나 유도적 쓰기나에 그 초점을 두지만 자유 쓰기 연습에서는 의미의 표현에 큰 비중을 둔다. 따라서 학생들이 자유롭게 쓰고 싶은 내용을 쓰도록 하는 것이 실제적인 글쓰기를 통한 의사소통의 진정한 단면을 반영하는 것이 된다.

## 02. 쓰기 중심의 질문하고 대화하는 수업 과정

### 1. 알파벳을 쓴다.

학습 내용 성취기준	질문과 대화를 위한 쓰기 학습 활동의 예
가-1. 알파벳 인쇄체 대·소문자를 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알파벳 베껴 쓰기</li> <li>● 순서대로 제시된 알파벳 인쇄체 대·소문자 중 빠진 알파벳 쓰기, 친구가 쓴 인쇄체 대·소문자 고쳐 쓰기</li> <li>● 각자 쓴 알파벳을 옆 짝과 맞춰보기, 다르게 쓴 내용이 있으면 질문과 대화로 고치기, 이 활동으로 어떤 것을 알게 되었는지 다른 짝에게 말해 주기, 가르쳐 준 친구에게 감사의 표현하기</li> </ul>

### 2. 낱말이나 어구를 쓴다.

학습 내용 성취기준	질문과 대화를 위한 쓰기 학습 활동의 예
나-1. 구두로 익힌 낱말을 따라 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어진 낱말을 베껴 쓰기</li> <li>● 그림으로 제시된 낱말을 퍼즐에서 찾아 그대로 따라 쓰기</li> <li>● 그림이 제시된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 빈칸에 낱말 완성하기</li> <li>● 짝과 베껴 쓰거나 퍼즐이나 빈칸 완성에 대한 것을 맞춰 보기, 같은 내용에 0 표하고 다른 내용은 질문과 대화로 고쳐 보기, 전체 활동으로 고친 내용을 발표하기, 배움을 준 친구에게 감사와 고마움 표시하기</li> </ul>
나-2. 짧고 쉬운 낱말이나 어구를 따라 쓰거나 보고 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림을 보고 일치하는 낱말이나 어구를 따라 쓰기</li> <li>● 그림에 해당하는 낱말이나 어구를 보고 쓰기</li> <li>● 전체 활동으로 따라 쓰거나 보고 쓰기, 해당 그림 자료나 낱말 자료를 보고 짝과 둘이 활동하기, 한 사람이 해당하는 그림 자료를 보여 주고 다른 한 사람은 이에 맞는 글을 써보기, 역할 바꾸어 활동하기, 정리 단계에서 오늘의 표현을 영어, 한글, 그림으로 각자 기록하기</li> </ul>
나-3. 그림, 실물, 동작 등을 나타내는 낱말이나 어구를 완성하여 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첫 글자만 제시된 낱말 완성하기</li> <li>● 일부가 잘못 쓰인 낱말 고쳐 쓰기</li> <li>● 알파벳 인쇄체 대·소문자가 섞여 제시된 낱말 고쳐 쓰기</li> <li>● 위 해당 활동을 각자 하기, 짝과 각자 한 활동을 맞춰보기, 다르거나 틀린 내용에 대한 질문과 이야기하기, 둘의 짝 활동을 마친 팀은 함께 선생님께 오기</li> </ul>

## 03. 쓰기 활동의 사례

### 1. 통합과정으로의 쓰기 활동의 실제

- 보석 맵을 이용한 쓰기 활동 사례



보석 맵 활동은 종이를 보석 모양으로 접은 후 접어서 펼친 모양이 다이아몬드 모양의 라인이 생기는 것을 이용하는 모둠 활동이다. 4겹의 다이아몬드 모양이 나오면 다음과 같이 활동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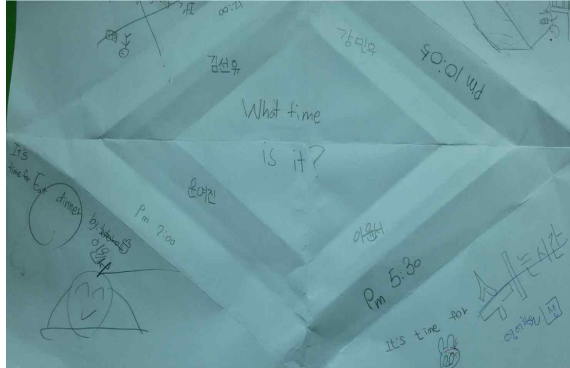
(4학년1학기, Lesson 3. What Time Is It? 3/4 차시)

- ① 첫 번째 칸의 다이아몬드에 주제를 쓴다. 여기서는 Lesson 3. What Time Is It? 이므로 그대로 주제를 What Time Is It? 이라고 쓰도록 했다.
- ② 두 번째 칸의 다이아몬드에 각 팀원의 이름을 사각 안에 동시에 쓴다. 사각 모양에 사방에서 동시에 쓸 수 있는 것이 이 활동의 장점이다.
- ③ 세 번째 칸의 다이아몬드에 자기 이름 밑에 자기가 하고자 하는 활동의 시각을 적도록 한다.
- ④ 네 번째 칸의 다이아몬드는 옆으로 한 칸 돌려서 그 옆에 앉은 짝이 앞 사람이 쓴 시각을 보고 이 시각에 자기 짝이 무슨 일을 할 것인지 짐작하여 쓴다. 예를 들면 그림에서처럼 김선유 학생이 옆 짝이 쓴 P.M 12:00을 보고 It's time for lunch 라고 짐작하는 글을 쓴다.
- ⑤ 다섯 번째 칸의 다이아몬드에는 다시 본인에 해당하게 보석맵을 돌려서 자신이 활동할 진짜 내용을 적는다. 이때 추측이 맞으면 O표를 하고 틀린 경우 그림과 같이 x 표를 하고 진짜 활동 내용을 말해주고 고쳐 적는다. 이 때 본인이 하고 싶은 표현을 영어로 할 수 있으면 영어로 하고 영어 단어를 모르면 모둠에서 물어서 적거나 모두 모르면, It's time for~ 만 영어로 하고 그 뒤의 표현은 한글로 적도록 허용하였다.
- ⑥ 이 활동은 듣고 말하기, 듣고 쓰기, 읽고 말하기, 읽고 쓰기, 말하고 쓰기, 쓰고 말하기를 통합하는 쓰기 활동으로 이 과정에서 쓰기가 독립적으로 동떨어져 쓰는 것이 아니라 듣고 말하고 읽고 쓰기가 거의 같이 이루어지면서 유의미한 상황에서의 쓰기를 하기 위한 활동이다.
- ⑦ 옆 짝에게 What time is it?을 묻는 말, 각자의 일과에 따른 시각 It's 12:00 , It's time for lunch 라고 추측한 말과 글을 보고 It's time for sleep 이라고 자신의 일과를 말하고 적는다. 이 과정에서 각자가 아는 정보를 혹은 단어나 문장에 대한 지식을 상호작용에 의해 나누면서 서로에게 배움을 주고받고 하면서, 꼭 알아야 할 핵심성취 기준에 따른 내용을 확실히 이해하고 쓸 수 있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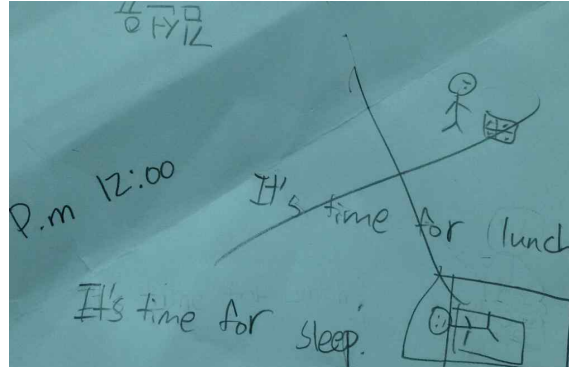
#### 〈 활동 순서 〉

- 1) 종이로 보석 맵 모양으로 접기
- 2) 주제 적기 :What time is it ?
- 3) 네 코너에 팀원 이름 적기
- 4) 각각 원하는 시각쓰기
- 5) 맵을 한 칸 옆으로 돌려 바로 옆 사람이 앞 사람이 쓴 시각에 대해 무슨 활동을 할 지 추측하여 적기
- 6) 다시 맵을 원래대로 돌려 옆 사람이 추측한 것이 맞는지 묻고 답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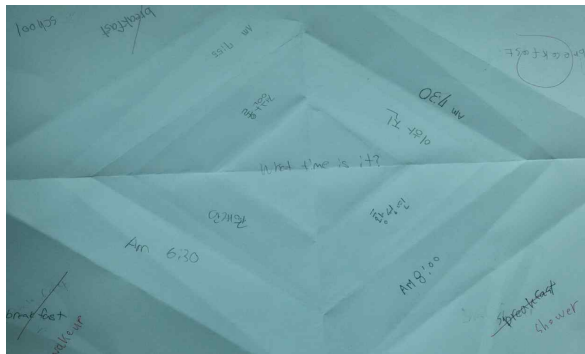
〈 대화할 내용 〉	〈 수정한 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What time is it?</li> </ul> <p>It's <u>PM 12</u></p> <p>It's time for <u>lunch</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What time is it?</li> </ul> <p>It's <u>PM 12</u></p> <p>It's time for <u>sleep</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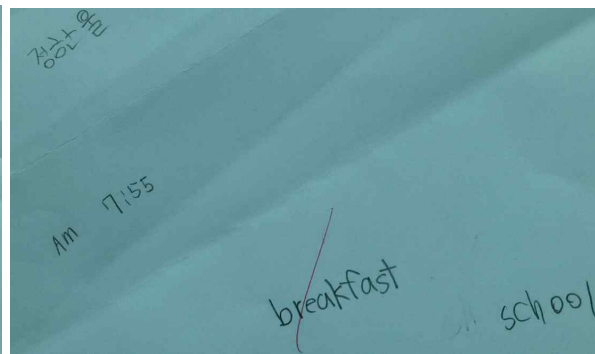
〈그림 1- 모듈 1의 전체 맵〉



〈 그림 2-모듈1의 수정된 한 부분 맵 〉



〈 그림 3-모듈 2의 전체 맵 〉



〈그림 4- 모듈 2의 수정된 한 부분 맵〉

- 가. 위의 그림1~2에서 What time is it? 의 주제에 A학생이 P.M 12를 답하였고 B 학생이 이 시간에 It's time for lunch를 추측하여 답하였고 A의 실제 답은 It's time for sleep 이라고 되어 있다.
- 나. 위의 그림 3~4에서는 A 가 AM7:55 이라고 써 놓았고 이것을 본 B가 breakfast라고 추측하였고 실제 A의 답은 school 이다.
- 다. 이처럼 추측한 내용이 맞는지 전체 대화를 주고 받으며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를 동시에 활동하며 교사와 학생간 상호 작용보다 학생대 학생간 상호작용에 중점을 두게 되어 학생 중심과 과정 중심의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수동적으로 듣거나 누구 하나만 말하고 쓰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동시 다발적으로 활동함으로써 능동적이고 개별화된 학습을 할 수 있다.

## 2. Shape poem 으로 단어나 구문 쓰기

( 3학년 2학기, Lesson 8. I Like Apples / 3학년 1학기 , Lesson 2. What's This ?)

이 활동은 주제어에 맞는 그림모양으로 시를 쓰거나 단어나 구문을 써 보는 것이다. 즉 아래의 그림 1, 2와 같이 spider 나 bird를 주제로 한 글쓰기를 한다면 거미 모양과 새의 모양이 되도록 간단한 글을 넣어 시가 되거나 거미나 새와 관련된 어휘를 넣어 거미모양과 새의 모양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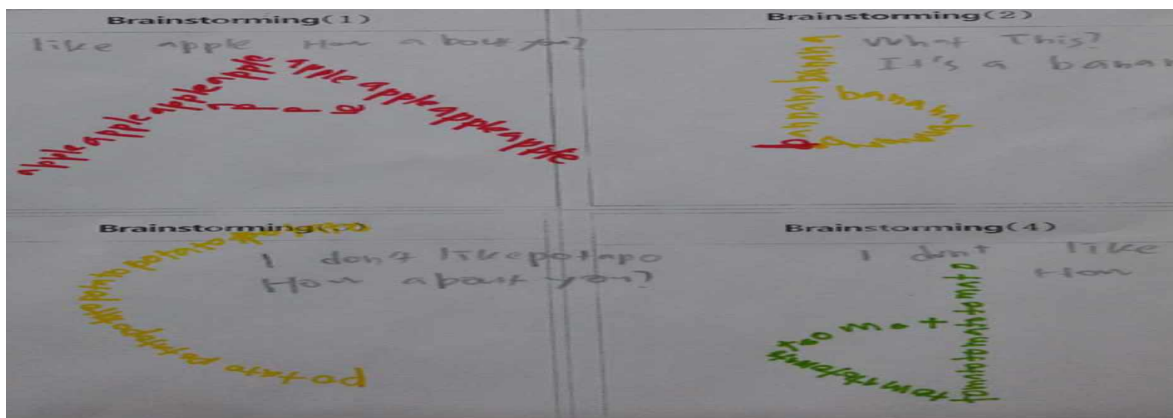
Spiders  
They are hairy  
and they are scary  
They are creepy and they are crawly  
They live in the  
Darkest and dampest places  
And they fit into  
Many different spaces  
They make you scream and they make you bawl  
They make you jump and  
Then they make you fall  
I wait for the day when they won't exist  
For I know they  
Will no longer  
Be missed.  
Spiders.

< 그림 5- spider poem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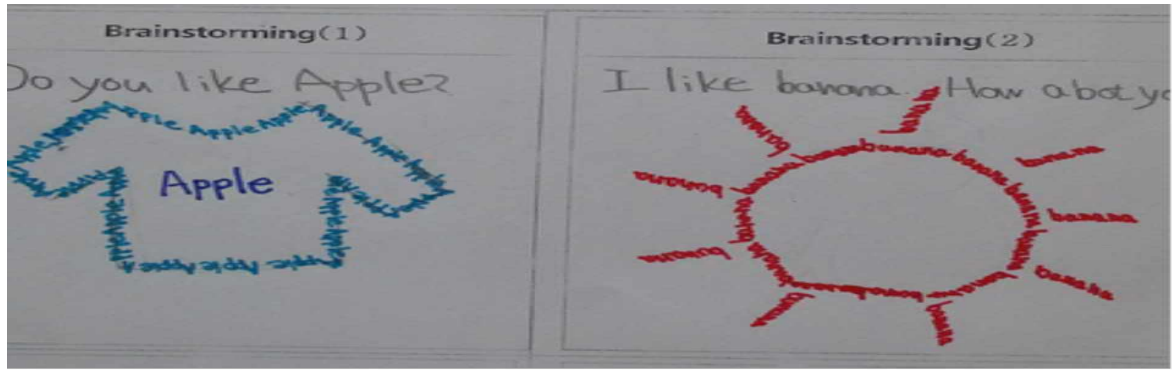
BIRD by Carol  
hop, worms, sing, robin, nest, eggs, fly, babies  
dig, swoop, pretty, yellow, orange, small, big  
downy, feathery.

< 그림 6-bird words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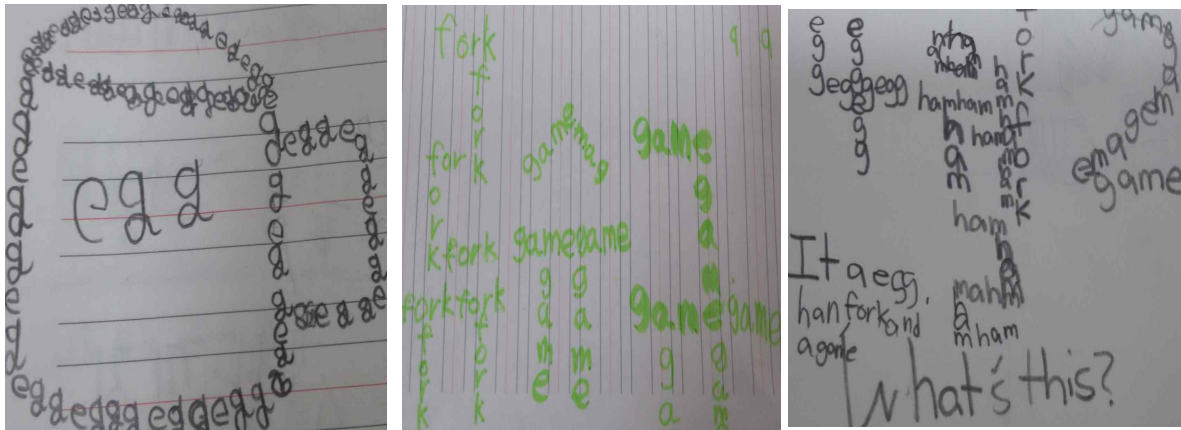
위와 같은 shape poem을 응용하여 다양한 주제의 쓰기 활동을 해보았는데 쓰기를 싫어하는 대부분의 학생들도 매우 열심히 쓴다는 생각보다 창작활동의 한 부분같은 느낌으로 열심히 그리고 쓰고 말하고 하는 것을 보았다. 매번 이 활동을 하는 건 아니지만 각 단원의 끝 무렵이나 두 단원이 끝난 후 story time 시간에 아래와 같이 활동을 한 후 짝과 이야기 해보는 시간을 가지고 짝과 활동에 대한 평가도 해보았다. 글을 쓰는 아이디어가 좋았다거나 여러번 반복하여 하고자 하는 표현을 잘 쓸 수 있게 되었다거나 하는 평을 중심으로 매우 즐겁게 반복하여 쓰는 것을 보았다. 이 활동은 영어를 창의 인성을 높이기 위한 접근 방법으로 적용해 보았다.



< 그림 7-apple, banana, potato, tomato 어휘 쓰기 >



<그림 8- apple, banana, potato, tomato 어휘 쓰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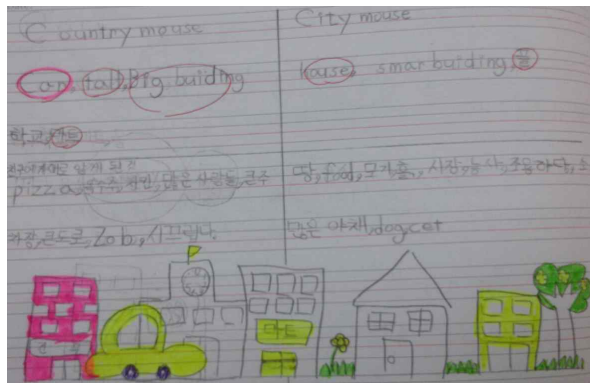
<그림 9- E/e, F/f, G/g, H/h 관련 어휘 쓰기 >

위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학생마다 다르게 각자의 개성에 따라 다른 모양의 글쓰기를 보여주었다. apple, banana, potato, tomato 어휘와 관련 사과나 바나나와 직접 관련 있는 모양의 글 쓰기도 있었지만 전혀 다른 모양에 사과나 바나나를 쓰는 경우도 많았다. egg 컵, 자신의 이름으로 쓴 egg / fork / game 의 단어, 그날의 날짜로 쓴 단어, 알파벳 A,B,C,D로 모양을 정하기도 하고 셔츠, 태양등 자신이 그리고자 하는 다양한 모양에 핵심 어휘를 쓰기를 좋아하였다. 물론 원래의 shape poem과는 좀 다르게 응용되었지만 적어도 쓰기를 싫어하면서 쓰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가끔 실시해 보았다. 비록 원래의 모양 시와는 다르지만 다양한 창의성으로 모두가 다르게 써서 흥미를 보였다. 그림 9에서는 쓰기까지의 목표는 알파벳 E/e, F/f, G/g, H/h 이다. 그러나 각 알파벳과 관련된 어휘가 그림과 함께 노출되어 있어 아이들이 알파벳뿐 아니라 단어로 모양을 만들었고 그렇게 하고 싶어 하였다. 물론 그냥 알파벳만으로 모양을 만든 학생들도 있었고 참으로 다양한 결과를 산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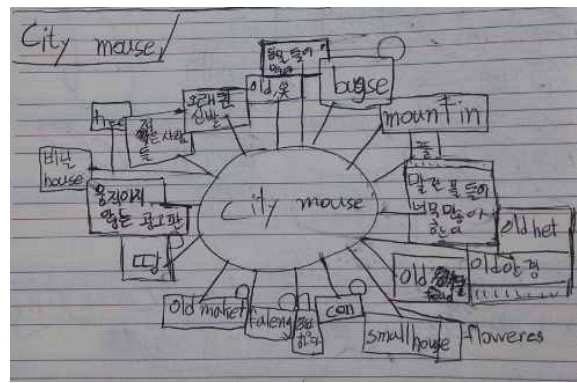
### 3. 역할극의 내용에서 비교하며 쓰기

- 1) 시골쥐와 서울쥐의 역할극 하기
- 2) 역할극의 내용에서 시골쥐가 도시에서 본 것 쓰기
- 3) 역할극의 내용에서 도시쥐가 시골에서 본 것 쓰기
- 4) 기록한 내용 말해 주며 짝과 대화하기





〈 그림14-역할극 시골쥐와 도시쥐의 생활 비교 〉



〈 그림15-역할극 시골쥐와 도시쥐의 생활 비교 〉

- 각자의 방식으로 그리거나 단어를 쓰거나 하여 시각화 함
- 시골쥐와 서울쥐가 본 것에 대한 보충을 하거나 모르는 것을 묻고 말하기